

광주시-사업자, 중앙공원1지구 교통문제 재점검 합의

인근 주민 "불편 가중" 민원...주택건설사업 승인 후 재점검 이례적 도로 확장 여부·교통체계 등 추가 검토...민원 제기 가능성 선제 대응

광주시와 중앙공원 1지구 사업자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 신축 이후 예상되는 주변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광주시는 "최근 공동주택(아파트) 신축공사 사업계획을 승인·고시한 중앙공원1지구 공동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해 사업자측과 대규모 아파트단지 신축에 따른 주변 도로·교통 문제를 재점검하기로 합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미 교통영향평가 등 주택건설사업이 승인된 사업에 대해 사업자측이 교통문제 등을 재점검하기로 합의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는 "최근 강기정 광주시장이 쌍촌동 GS자이, 마곡 위파크 등 신축 중인 대규모 공동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해 인근 주민들로부터 교통 불편이 가중된다는 민원을 듣고,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완료됐다고 하더라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대책을 모색해볼 것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라며 "사업자측도 예상될 수 있는 민원에 대비한다는 점에서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제 중앙공원1지구는 이미 주택건설사업이 승인된 상태지만, 사업자들은 광주시의 제안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등을 통해 아파트 인근 주변 교통개선 대책을 재점검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중앙공원 1지구 민간사업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은 "제대로 된 교통대책 수립은 아파트 입주 주민 등 광주시민들께도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앞으로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결과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광주시와 공공성 강화 방안을 적극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사업자는 아파트 준공 후 입주 시점에 발생할 수 있는 신축아파트 출입구 일대 도로 확장 여부와 신호등 설치에 따른 교통체계 점검 등 최선의 교통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꼼꼼한 재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 4일 광주 서구 풍암동 중앙1지구 비공원시설 공동주택(아파트) 신축공사 사업계획 승인을 고시했으며, 사업대상 대지면적은 19만 5456㎡, 건축면적은 3만2095㎡, 연면적은 64만374㎡다. 총사업비는 2조 1000억원 규모다.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 동 규모로 모두 2772세대가 들어서며, 사업 기간은 오는 2027년 1월 10일까지다.

광주시는 2017년 4월부터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중앙공원 등 9개 도시공원(10개 사업지)에 대해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체 사업 면적만 789만 7000㎡에 이른다.

민간공원 개발업체들은 이 가운데 90.4%인 713만 7000㎡를 공원으로 조성해 광주시에 기부 채납한다. 광주시는 법적으로 전체 공원면적의 30%까지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데도, 공원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전국 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평균 9%대의 면적만 아파트부지로 허용했다. 90%가 넘는 공원 면적 확보비율은 전국 자치단체 중 가장 높다.

변성훈 광주시 도시공원과장은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사업자가 제안한 수익금을 초과한 이익은 환수하도록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 타당성 검증으로 무분별한 분양가 책정을 억제하는 등 전국 우수 행정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며 "경관호수공원인 중앙공원을 비롯한 9개사업지에 명품 도심 공원을 조성하는 데 행정력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9일 중앙공원 1지구 민간사업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이 광주시 서구 풍암동 사업지에서 공원정비 공사 등을 하고 있다. 사업지는 오는 2027년까지 2조 1000억원을 투입해 8개 기능을 갖춘 테마숲과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여수산단에 생분해성 플라스틱 인증 센터 구축

전남도, 225억 공모사업 선정

전남도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생분해성 플라스틱 표준개발 및 평가 기반 구축사업' 공모에서 선정돼 여수국가산업단지에 화이트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평가·인증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구축한다.

올해부터 5년간 총사업비 225억원을 들여 여수 국가산업단 미래혁신지구에 구축되는 지원센터는 국내 대표 친환경 소재 인증기관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산림기술시험원, 한국화학연구원 등이 참여해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시험·평가·인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기업 지원체계를 마련해 화이트 바이오 산업 육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센터 내에는 생분해 플라스틱 장비를 구축, 생분해 평가법 및 바이오탄소 함량 고속분석법 개발하고 해외 시험기관 지정을 통한 해외 인증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케이(K)마크를 제정해 기업을 지원하면서 생분해성 평가 데이터베이스(DB) 및 플랫폼 구축 기능도 맡게 된다. 바이오화학이라고 불리는 화이트바이오 산업은 식물, 미생물, 유기성폐자원 등을 활용해 기존 석유화학제품을 바이오 기반 소재로 대체하는 산업을 통칭한다. 기존 화학소재보다 탄소를 적게 배출하며, 배출된 탄소 또한 식물 등 바이오 물질에서 유래된 탄소중

립이 가능한 친환경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세계시장은 2021년 약 100조원에서 2026년 303조원으로 연간 24.8% 성장하고, 국내시장은 2021년 2079억원에서 2026년 4426억원으로 연간 16.3%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시장 규모는 세계시장의 0.2~0.5% 정도로, 관련 산업이 세계시장으로 진출하도록 지원이 절실하다.

전남도는 기존 석유화학산업과 연계한 화이트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시제품제작-양산지원-평가·인증-재지원화 등 시스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시민주도 안전마을 만들기 본격화

월곡1동·동명동 등 협의체 출범·안전지킴이 위촉

광주시가 '시민주도형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동명 안전마을협의회'는 지난 7일 푸른마을공동체센터에서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에 앞서 안전지킴이(동명이네 보안관) 역량 강화를 위해 안전지킴이 리더양성 교육도 진행했다.

'월곡1동 안전마을 구축협의체'도 지난 7월 27일 월곡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전마을 만들기' 출범식을 개최하고, 활동을 공식화했다.

안전마을협의체는 안심보안관(월곡1동), 동명이네 보안관(동명동)을 중심으로 마을 우범지역 야간순찰, 안전취약지구 발굴 및 개선, 마을 안전지도 만들기, 안전마을학교 운영 등에 나선다.

광주시는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계획단계부터 1명의 전문가를 각각 전담 배치하는 등 사업 진행과정에서 전문가 컨설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오는 9월에는 중간 점검에 나선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4월 마을 단위 안전마을협의체를 대상으로 '시민주도형 안전마을 만들기' 제안서를 접수 받아 5월 전문가 심사를 거쳐 월곡1동 안전마을 구축협의체와 동명동 안전마을협의체를 대상으로 각각 선정했다.

박남주 광주시 시민안전실장은 "안전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시민주도형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안전한 광주공동체를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 전국체전 도민응원단 참여 열기 후끈

1만5000여명 목표 초과...선수 사기진작·지역 홍보대사 역할

전남도가 오는 10월과 11월 전남에서 15년 만에 열리는 제104회 전국체전과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의 도민응원단 1만5571명을 모집하는 등 도민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전남도는 전남도교육청, 전남도체육회, 22개 시·군과 연계해 지난 4월부터 일반인, 학생, 체육단체 등 3개 분야로 나눠 도민응원단을 모집했다. 그 결과 당초 목표였던 1만3400명을 뛰어넘은

1만5571명이 신청해 양대 체전 성공 개최를 위한 도민의 높은 관심과 참여 열기를 확인했다.

도민응원단은 열린 응원으로 선수단의 사기를 높이고 활기찬 대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경기장 질서 유지와 환경 정리 등 올바른 경기 관람 문화 정착 활동에 나선다.

또한 선수단과 방문객에게 전남의 역사와 문화 예술을 알리는 홍보대사로서 역할도 한다.

전남도는 8월 말까지 기관별 자체교육을 해 도민응원단의 역할과 경기장별 경기 일정 등을 안내하고 오는 29일 전국-장애인체전 도민 응원단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응원단은 도민이 함께 참여하고 국민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성공적인 체전 개최를 위해 역량을 결집할 방침이다.

양대 체전 종료 후에는 우수 활동 응원단을 선정해 도지사 표창도 수여할 계획이다.

제104회 전국체전은 오는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주 개최지인 목포를 비롯한 22개 시·군 70개 경기장에서 49개 종목이 분산 개최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힘으로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광주문화신협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4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